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24호(96/12/16)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대표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송년식>

파괴-세월의 파괴

박노해

새벽은

새벽은 눈을 뜬 자만이 볼 수 있다

길은

그것을 잃고 괴로운 자만이 찾아 나선다

희망을 가졌던가 온 몸으로 깨지며 밀고 나갔던가

이젠 오류도 패배도 없이 작아진

저만치 흘러가는 한 시절의 푸른 빛이여

우리 슬픔도 괴로움도 없이 흘러 간다면

무엇으로, 세월의 파괴를 견뎌낼 것인가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

12월 23일(월) 오후 6시30분, 진미식당(전화:713-2161사무실서 4호선 숙대입구
방향 100미터) 회비: 1인당 1만원 자세한 것은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야 했다. 이제 그런 불행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모든 불의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를 바탕으로 무너진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왜곡된 과거의 유산과 잔재들을 청산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화합과 희망'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1996년 12월 16일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참여단체 일동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참관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요사업>

1. 사업의 기초

사업안은 국민위원회가 발족선언식을 가지고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이 구성된 후 확정할 예정이며 그 후에도 발족을 할 때까지는 발족을 준비하며 내실을 다지는 사업과 해당 시기 긴급한 사안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주로 할 것이다.

과거청산 작업이라는 크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최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소박한 희망과 전문가들의 역량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내년에 있을 예정인 6.10 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등 전국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제반 사업과 혼선을 주거나 분산하는 방향의 사업은 철저히 이를 지양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과거청산은 국민과 함께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모두 관련되는 만큼 국가기관에 요구할 사업을 정하여 이를 실제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 나갈 것이다.

2. 예정사업

가. 5.18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모니터링, 재판평가 자료집 발간 등

나. 이번 공소에서 제외된 가해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운동

다. 5.18 학술제

라. 사면반대운동

마. 피해자 증언의 장과 피해신고센터

바.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운동(5·6공 피해자 입법운동과 집단 소송)

사. 5·6공 수혜자 서훈박탈 운동

아. 민관합동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운동

자. 대선공약에 과거청산 작업 반영하기

차. 과거청산 관련 국제연대

등의 사업을 위 기초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사 / 업 / 보 / 고

(96년 11월 첫주부터 12월 둘째주까지)

서준식 대표, 국보법 철폐 발제

지난 12월 14일 학술단체협의회,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가보안법, 필요한가?'에서 2부 발제를 서준식 대표가 하였습니다.

서대표는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란 주제의 발제문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운동의 국내외적인 조건을 살펴보고, 1990년대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대한 반성,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위한 기본구상을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서대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장에서의 약간의 희망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호의적인 조건은 아무 데도 없는 듯 보인다."면서 그간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운동이 통일운동 또는 양심수 석방 운동과 혼재되면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전술의 상투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① 철저히 '인권'의 언어와 '인권'의 입장을 가지고 접근할 것 ② 철폐를 주장하는 민족민주운동권 뿐만 아니라 개정을 주장하는 세력까지를 전략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단위를 시급히 만들 것 ③ 학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입법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 ④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로 구성되는 국가보안법의 국제 로비단을 만들어 유엔과 외국 인권단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로비를 진행할 것 ⑤ 상설적인 국가보안법 소송추진단을 구성할 것 ⑥ 국가보안법 철폐만을 자신의 유일·궁극의 사명으로 삼는 단체를 만들 것 ⑦ 공

동대응기구는 한시적 활동을 전제로 해서 결성할 것 ⑧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재원을 찾을 것 ⑨ 카페 라이터, 인터넷 전문가, 국회 정치권에 로비할 전문가, 대중적이고 계몽적인 글을 생산할 수 있는 작가, 만화가, 외국어에 능한 사람들 등등의 전문가를 확보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대표의 발제는 토론자들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전문가들로부터는 매우 참신한 발제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김영규(인하대), 이창호(경상대) 교수와 한택근 변호사가 기초발제를 하였고, 2부 토론에는 박원순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김정남 목사, 최규엽 전국연합 정책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서대표의 발제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참가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과거청산국민위)가 15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두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16일 발족했습니다. 지난 8월 전두환 등 5.18학살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직후부터 민변의 제안에 의해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민교협, 민가협, 유가협 등이 10회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이를 준비해왔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청산국민위가 하려는 사업들은 매우 광범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한 가지라도 한 단체가 책임질 성격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민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인권 차원의 과거청산운동이 국민적 지지 속에 전개되고 그 힘으로 실질적인 과거청산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5.18국민위를 계승하고, 단체와 단체가 추천하는 국민위로 구성될 것입니다. 각 단체

동티모르 연대모임 창립

올해는 인도네시아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열망하는 60만 동티모르인들에게는 특별히 의미 있는 해일 것입니다. 그것은 동티모르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벨로주교와 해외 독립운동을 지휘하는 호르타씨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세계가 동티모르 독립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동티모르인들의 독립투쟁과 인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모임이 11월 12일 발족되었습니다. 2개월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동티모르 연대모임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회원들과 그간 동티모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수십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 일, 동티모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김정희 총무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김총무는 홍보실에 배치되어 소식지 발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은 김정희 총무에게 문의바랍니다.

10대 뉴스 설문 응답 안하셨습니까?

인권홍보실에서는 올해 인권 10대 뉴스 설문지를 독자들에게 배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10대 뉴스는 올해로 4회에 이르게 되는데 독자와 변호사, 인권활동가들의 의견 분포도를 분석해서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의 인권옹호자와 침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10대 뉴스와 인권옹호자, 침해자는 올 중간호인 12월 27일자에 발표하게 됩니다.

아직 설문에 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전화로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다 아시죠.

국내의 동티모르 연대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이 동티모르 운동가들을 초청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으며, 지난 94년 12월에는 인권협 회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정==

- 서준식 대표가 출국금지된 사실은 인권하루소식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12월 17일 출국은 무산되었으며, 12월 19일의 행정소송재판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24일 출국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서대표는 미국에서 신병 치료차 머무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약 2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여 귀국하려 했습니다. 서대표는 사회안전법의 변종인 보안관찰법의 반인권성에 대항, 보안관찰법을 계속 무시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검찰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의 악의적인 법 적용에 의해 출국을 금지당한 것입니다.

- 강경선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태지역 인권대회에 참가한 이성훈, 조지현 씨 등이 만나고 왔습니다. 강경선 부위원장은 방송대 교수로 재직중인데 지난 1월, 1년간의 일정으로 교환교수로 인도로 떠났습니다. 강부위원장은 인편으로 사무국 활동가 모두에게 선물을 보냈으며, 안부도 물어왔습니다. 강부위원장은 오는 1월말께 귀국합니다.

- 백승현 자문위원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민변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정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백변호사는 민변 바로 근처로 사무실을 이전했고, 정연순, 조광희 변호사와 함께 합동으로 사무실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전화: 02-3471-4004 팩스: 3471-0234

의 대표들이 공동대표단을 맡고, 5.18국민위의 고문들이 그대로 고문으로 영입하고, 상임공동대표에 김상근 목사,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최영도 민변 회장, 김상곤 민교협 의장, 지선 실천불교승가회 공동대표, 강신석 목사(광주)를 선출하였습니다.

과거청산 국민위는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선임하고, 단체 추천 국민위원들을 확정해서 오는 2,3월중에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갖게 됩니다.

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증보판 발간, 국민인권위원회 자료집 발간기로

인권정보자료실은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 자료집-무죄 받은 양심, 유죄 받은 권력 개정증보판을 14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증보판 자료집에는 진상호씨 변론요지서, 허인회씨 사건 1심 판결문과 자료가 추가되었으며 부록으로는 국가보안법 전문, 국가보안법 개정 연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3항 및 5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문, 합헌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이 실렸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주문을 하시면 우편으로 배달해 드리고, 우송료 포함하여 1만 원을 받습니다.

한편, 정부가 97년까지 준비해서 98년부터 설치하겠다는 국민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민주법연과 함께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집 6권 발간

인권 관련 국정감사 자료집을 인권정보자료실에서 발간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모았던 국정감사 자료들 중 인권관련 주요 통계와 분석 자료, 정부의 계획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각 상임위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2

권), 내무위, 노동·환경위, 외무통일위, 보건복지위 등의 관련 자료를 모아서 총 6권의 두툼하게 묶은 이 자료집은 연구와 원고를 집필하는데 매우 긴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전질 14만원이고 각 권당 1만원에서 4만원씩의 실비를 받고 판매하며, 주문을 먼저 받아 그 양만큼 제본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인권현황에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최신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 성공회대, 연세대생 실습 끝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성공회대와 연세대생들의 실습이 11월말로 모두 끝났습니다. 성공회대생 16명은 1주에 세시간씩 10회에 걸쳐, 연세대생 4명은 매주 화요일마다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자료정리작업(워크시트 작성 작업) 등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 한총련 인권피해 대응 마무리

지난 8월 15일을 전후해 발생했던 연세대 사태 때 성추행 당한 학생 7명이 11월 21일 박일룡 경찰청장과 현장 진압경찰들을 대상으로 고소하고, 여성단체연합의 지은희 대표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등 인권단체 대표 9명이 고발을 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리 인권운동사랑방은 당시 연세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해왔고, 이런 결과로 108명의 인권피해를 조사, 9월 13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야당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지난 10월 추미애 의원등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를 폭로하고, 집중 추궁하게 되었고, 11월 성추행 당한 여학생들이 직접 고소를 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현재 고소 여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1차 조사는 끝이 났으나, 가해 경찰들을 추적 조사하여 기소할 것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선언문

오늘 우리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학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월26일에는 1심 판결이 이루어져 전두환 등 16명 피고인들에게 사형과 징역을 비롯해 무죄에 이르는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1979년 12.12로부터 시작하여 13년간이나 살인 학살 등 온갖 종류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였고 온 나라를 부정과 부패의 울가미에 씌워 송두리째 노략질했다.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암울한 독재와 부정과 불의에 찌들었던 오욕의 한 시대를 청산한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안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들을 법정에서 세우기 위하여 영웅적인 싸움을 전개해 왔었다.

그러나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요구는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반인륜적인 범죄로 인한 참혹한 인권 피해의 실상은 거의 규명되지 않았다. 5.18 재판의 핵심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인권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를 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뜻은 전혀 구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한편에서는 터무니없는 사면설까지 유포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우리의 소임은 피고인 몇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5.18 학살이라는 대표적인 인권유린 범죄를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지난날 독재 정권들이 저지른 다른 모든 인권유린 범죄 또한 낱낱이 규명하여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심판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 역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인 것이다.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하의 우리 현대사는 5.18 시민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인권유린 사태들이 자행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살인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자들은 온갖 특권을 향유하였고 수천억 치부를 누렸으며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 학살되거나 처형당한 사람들, 고문당한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십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감옥에 갇히고 생업을 박탈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아직도 원한 맺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한편으로 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하는 일이다.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권협약을 통해 법적인 공소시효를 초월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소시효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온갖 박해를 당한 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 그들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은 최종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다시는 그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 인권피해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그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정당한 배상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나아가 과거청산을 통한 정의실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화해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희망찬 진보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 남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진정한 과거청산 작업 없이는 결코 올바른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성취하고 21세기를 희망찬 민족사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현세기의 남은 과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 작업은 피해 당사자들과 몇몇 민간 단체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관은 물론 온 국민이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야만 가능하며, 전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이 땅의 독재자들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등 공지의 명백한 범죄를 자행할 때, 그들을 응징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종하면서 찬양했던 어처구니없는 시대를 살아

제1회 인권영화제 2개월 대장정 마감

-서울에서 제주까지 관람객 총 3만명-

제1회 인권영화제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2개월간의 장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1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도시에서 열렸던 영화제는 오는 22일 제주지역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된 것입니다. 15개 도시의 연 상영일수는 69일에 이르렀고, 연 관람객수는 약 1만 4천명(제주 제외)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서울과 합치면 연 76일간 전국에서 인권영화제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며, 연 3만명에 이르는 이들이 인권영화를 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울은 기대 이상으로 성황리에 마쳤지만, 지방은 썩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지역인 부산과 광주에서마저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올렸습니다. 지방에서 이처럼 인권영화제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 데는 우선 준비 주체들이 인권영화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그에 따른 홍보와 준비가 부족한 점, 상영장소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에 위치했던 점, 지방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저급한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단체들이 영화제를 계기로 하나로 모여 지역의 단결력을 과시하기도 했는가 하면, 서울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지방 문화운동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 정부기관들에서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도처에 있기도 했습니다.

지방영화제와는 별도로 고양시민회, 승의여전, 서울대 엠네스티 그룹 등이 자체 행사를 준비해 인권영화제 상영작품 일부를 상영했습니다.

이들 지방 행사에는 사랑방 실무자들이 파견되어 테이블을 관리하는 동시에 그곳에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만나 관계를 트고, 지역상황들을 점검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서준식 대표는 광주에 12월 13일 인권강연을 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권운동사랑방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최소한 영화를 본 3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인권문제를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작품들을 구입할 수 없나, 단체나 개인이 빌려 볼 수는 없냐는 문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복사해서 판매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인권교육적 차원에서 단체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중에 '영화로 배우는 인권'(가칭) 강좌를 개설할 것도 고려중입니다.

아래는 각 지방별 일정과 장소, 상영편수, 연인원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안산(11/20~24, 한양대 소극장), 14편, 150여명/* 구미(11/23~24, 가톨릭근로자센터), 8편, 400여명/* 원주(11/23~28, 원주 가톨릭센터), 18편, 900여명/* 청주(11/25~12/1, 예술공간 두레마을), 28편, 840여명/* 수원(11/29~12/1, 경기서적 문화공간), 17편, 850여명/* 인천(11/29~12/4, 부평4동 성당 교육관), 27편, 1,350여명/* 전주(11/30~12/4, 전북대 합동 강당), 16편, 1,920여명/* 대구(12/2~5, 열린공간 큐), 17편, 2,550여명/* 춘천(12/7~10, YWCA회관), 20편, 600여명/* 대전(12/8~10, 기독교사회봉사회관), 9편, 360여명/* 부산(12/10~15, 부산대 신축학생회관), 32편, 1,600여명/* 광주(12/10~14, 전남대 공대 시청각실), 19편, 850여명/* 구리(12/14, 카스맥주수택점), 4편, 200여명/* 제주(12/18~22, 제주 YMCA), 15편, 인원 집계 안됨.

96-11분기 재정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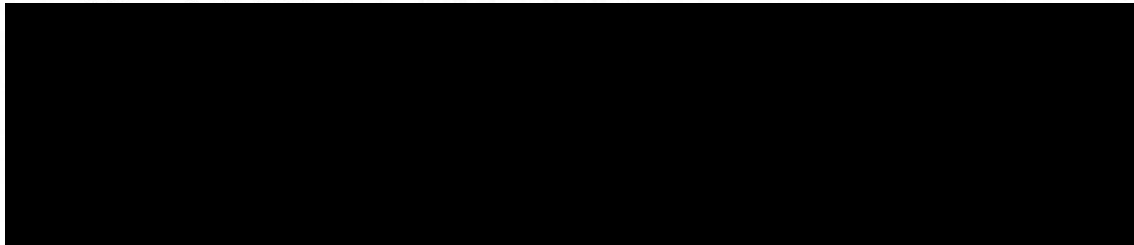
('96 11/16-12/15)

전기이월 2,764,107원

수 입		지 출	
회비	2,057,000	활동비	3,920,000
구독료	1,957,300	사업비	1,125,000
후원금	2,550,000	발송비	473,610
사업수익	720,400	사무비품	44,380
기타수익	1,213,038	사무실유지	593,788
		자료구입	46,680
		식대(야근)	417,100
		전화요금	1,143,990
		사무기기	300,000
		복 사 비	153,050
		기 타	173,180
계	8,497,350원	계	8,390,778원

최종결산 2,870,679원

<96년 11월 운영, 자문위원 회비납부자 명단>



※ 표기상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시 총무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새 자문위원을 소개

홍준희(25, 기아자동차 근무): 건실한 청년으로 오랫동안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을 꿈(?)꿨다가 몇 달전 취직이 되어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최근 노동법 개악에 따라 언제 쫓릴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홍준희 자문위원이 마음놓고 사랑방을 후원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악을 막아 달라는 부탁.

◇ 당부의 말씀 ◇

연말입니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성심성의껏 약정된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회비 납부율이 저조해지고 있고, 특히나 씹셈이가 많은 명절과 연말 등의 시기에는 회비 납부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회비는 사무국 활동가들의 활동비와 사업비 등으로 요긴하게 쓰여집니다. 올해 밀린 회비를 연말까지 청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